

제 목	국 문	사망전 의료이용 및 의료비 분석		
	영 문	Medical 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 prior to death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손명세 ¹⁾ , 유승흠 ¹⁾ , 박은철 ¹⁾ , 김춘배 ²⁾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 ,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²⁾		
	영 문	Myoungsei Sohn ¹⁾ , Seung Hum Yu ¹⁾ , Eun-Cheol Park ¹⁾ , Chun Bae Kim ²⁾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¹⁾ , Institute of Health Services Research ²⁾		
분 야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비	발 표 자	김 춘 배 (일반회원)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0),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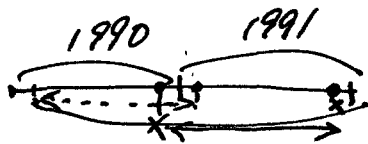
1. 연구 목적

사망전 의료이용 및 의료비는 사망의 대부분이 노인 연령층에서 발생하기에 노인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망전 의료이용 및 의료비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첫째, 사망전 의료이용률의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 둘째, 사망자의 사망전 의료비가 전체의료비에 차지하는 정도와 영향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연구대상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의 1991년 적용대상자중 자격관리파일상 사망으로 분류된 19,606명중 분석가능한 18,980명이며 이들의 1991년 급여파일중 의료비 내역을 사망자를 기준으로 재편성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변수는 연령, 성별, 자격구분, 보험료, 거주지, 상병명, 87년도 및 91년 의료이용 여부, 내원일수, 진료비 등이었으며 의료이용 여부는 입원이나 외래를 이용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로 이 연구에서는 정의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사망전 의료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사망전 의료비를 분석하고자 전체 의료비중 사망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를 계산하였고 사망전 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그런 자료를 얻었음 경우
정확한 (1년) 의료비를
얻기 매우 어렵다.

3. 연구 결과

1991년 사망자가 1991년 동안의 외래이용을 1회 이상한 경우는 54.3% 이었고 입원을 한 경우는 34.5% 이었으며 사망전 의료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는 40.4% 이었다. 사망전 의료이용은 연령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50-54세의 연령층에서는 55.5%가 입원한 반면 80세 이상에서는 16.6%가 입원 의료를 이용하였다. 사망전에 의료이용 여부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자는 여자에 비해 1.14배 의료이용을 더하며, 연령이 1세 증가함에 따라 1.06배 감소하며, 보험료가 1원 증가함에 따라 1.0001배 증가하고, 1987년에 의료를 이용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 1.95배 더 이용하였다.

50세 이상 사망자가 사망전 사용한 진료비는 같은 연령층이 사용한 진료비의 7.2% 이었으며 전체 대상자 일인당 진료비의 3.9배를 더 사용하였으며 입원의 경우 7.9배, 외래의 경우 1.0배의 진료비를 사용하여 사망자는 입원 진료비를 외래에 비해 더 사용하였는데 사망전 입원진료비는 입원일당 진료비보다는 입원일수의 차이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 사망전 입원진료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일세 증가함에 따라 54.6원을 감소하였으며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459.0원, 피부양자에 비해 피보험자가 1,934원 더 많이 사용하였고, 보험료가 1원 증가함에 따라 0.033원 증가하였고, 입원일수가 1일 증가함에 따라 557.2원 증가하였다. 외래진료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일세 증가함에 따라 21.76원을 감소하였으며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159.4원, 보험료가 1원 증가함에 따라 0.010원 증가하였고, 외래방문일수가 1일 증가함에 따라 137.2원 증가하였으며, 1987년 의료이용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에 비해 126.2원 증가하였다.

50세 이상 사망자의 입원 다빈도 질병으로는 위의 악성신생물, 간 및 간내담관 악성식생물, 만성간질환 및 경변, 본태성 고혈압, 기관 및 폐 악성신생물, 뇌내 출혈, 뇌동맥의 폐쇄, 당뇨병, 심부전, 횡장의 악성식생물 순이었으며, 외래 다빈도 질병으로는 위의 악성신생물, 본태성 고혈압, 간 및 간내담관 악성신생물, 만성 간질환 및 경변, 기관 및 폐 악성신생물, 뇌내 출혈, 뇌동맥의 폐쇄, 심부전, 당뇨병, 심장 울동부정 순이었다.

4. 고찰

사망자가 사망전에 이용하는 의료는 대부분이 입원 의료이용이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률 및 일인당 진료비가 모두 감소하였으며 50세 이상에 있어 사망자가 사망전 사용하는 의료비가 전체의 의료비에 7.2%이었고 대상자수가 1.9%이었음을 감안하면 향후 사망전 의료이용의 중요성은 더 해지리라 판단한다.